

함평군, 겨울축제기간 숙박 세일... 관광활성화 시동

함평 겨울빛축제 기간 평일 50% 할인
돌머리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서 예약
24동 숙박시설 기존 예약자 동일 혜택
12월 15~25일 주말 숙박료 20% 할인

함평군이 '함평 겨울빛축제' 기간 지역 대표 캠핑장인 돌머리어촌체험마을 일원에서 숙박세일 페스타를 시행해 지역관광활성화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함평군이 주최하는 '2024 겨울밤 빛축제' 기간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숙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돌머리어촌 일원에 조성된 총 24동의 오토캠핑장이 숙박시설 할인 대상에 포함되며 평일(일요일-목요일)에는 50%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된 요금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8만원 선으로 기존 예약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겨울밤 빛축제 기간 중 특별 이벤트도 마련됐다. 12월15일부터 25일까지는 주말 숙박료에 대해 20% 할인이 적용된다. 20일, 21일, 24일은 주말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 여행을 계획하는 가족과 단체에게 큰 호응이 예상된다.

숙박 예약은 돌머리어촌체험휴양마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숙박세일 페스타는 함평 겨울밤 빛축제와 연계해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함평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며 "빛과 자연, 예술을 한데 엮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선사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4 함평 겨울빛 축제'는 "함평의 밤, 빛의 향연"을 주제로 26일부터 12

월 25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축제는 다양한 빛 조형물과 야간 경관을 통해 겨울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돌머리어촌 체험캠핑장과 연계한 숙박 할인은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여행을 선사할 예정이다.

함평=신재현 기자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곡성군, 12월20일까지 5주간 실시

곡성군은 오는 12월20일까지 5주간 심층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19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 주민신고 사례, 고액 또는 반복 결제 등 고위험군 단속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 가격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해당 행위가 적발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앞으로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적극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곡성=김대영 기자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함평군, 미래농업 비전 공유

함평군은 지난 15일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선정된 함평군 청년후계농 33명과 농업 분야 전문가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업 트렌드 변화와 대응 전략, 청년농업인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함평군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했다.

행사는 △농가살림연구소 대표의 '농업 트렌드 변화와 대응' 강의 △청년후계농업인의 의무사항 및 지원사업 안내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우수 사례 발표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함평군은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영농정착금 지원 △청년창업농장 조성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등이 있다.

군은 이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농으로 자리 잡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의 미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농업 CEO로서 역량을 키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곡성군의 찾아가는 행복 빨래방 관계자들이 취약계층 가구의 대형 이불 세탁 준비를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찾아가는 행복 빨래방 마무리

이달 말일까지 주 3회 순회 예정
117개 마을 311가구 서비스 제공

곡성군이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행복빨래방' 서비스를 이달 말일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19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가구의 대형 빨래를 세탁해주는 민관협력사업으로 고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다.

군은 지리적 특성에 맞춰 3개 권역(곡성읍권역, 석곡면권역, 옥과면권역)으로 나누고 지역 농협과 곡성지역자활센터가 협력해 이동빨래방 차량이 정기적으로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까지 117개 마을 311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했고 11월 말일까지 주 3회 일정으로 이동빨래방 차량이 순회할 계획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항상 세심히 살피고, 찾아가는 행복빨래방 서비스와 같이 군민들의 삶에 더 다가가는 복지 시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담양군문화재단, 추자혜 레지던시 입주작가 작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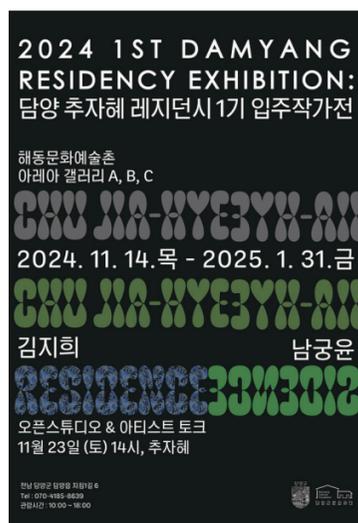
2025년 1월까지 30여점 공개

(재)담양군문화재단은 내년 1월31일까지 해동문화예술촌 아레아갤러리에서 추자혜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의 작업 결과물을 선보이는 '추자혜 레지던시 입주작가展'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시작된 추자혜 레지던시는 지역 내외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결과발표전과 아티스트 토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작가들의 작업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시는 '담양'에서 생활하면서 각자의 작업에 대해 스스로 묻고 답하며 작가의 상상으로 창작된 작품 약 30여 점을 선보인다.

'헌 옷'으로 작업하는 김지희 작가는



다락방에 쌓여있던 가족들의 옷, 지역 주민들의 옷을 한데 모아 작품으로 구현함으로써 각자의 존재 방식에 대해 탐구한다.

남궁윤 작가는 고립된 자아와 그 안에 담긴 여러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을 표현한다.

담양 주민들과 협업해 새로운 움직임을 창출한 이번 작업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동문화예술촌은 매주 월요일 휴관으로 전시 관람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한편 입주작가 2인의 다양한 작품 전시와 함께, 창작 배경과 작품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오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추자혜에서 진행된다.

함평=신재현 기자

청년 근속장려금 참여기업 추가 모집 함평군, 29일까지 접수

함평군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기업과 청년 근로자는 4년간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함평군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청년 근로자는 입사 1~4년 차의 18세 이상 45세 이하 정규직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함평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29일까지 함평군 농어촌 공동체과(061-320-2102)에 접수하면 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 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직장임금 보장 등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진일보 @jnilbo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nilbo.com